

石戰의 스포츠속성에 관한 史的 해석

Histor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rock fighting as a sport

조준호* 인천전문대학

Cho, Jun-Ho Incheon c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석전(石戰)의 스포츠속성에 관하여 사적(史的) 해석을 통해 석전이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라 스포츠속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민속놀이였음을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석전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과 국가를 지키며 농업을 중시하는 민족의 풍년기원을 위해 발생되었으며 민속신앙인 서낭당과도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석전은 우리 삶과 함께 성장한 우리민족의 오랜 무예스포츠이자 놀이였다. 둘째, 석전은 고대에는 정월, 고려시대는 단오, 조선시대는 정월대보름에 행하여졌으며 실제 석전을 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원시적 형태의 군사적 전략도 보일만큼 매우 역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도지방에서는 석전이 무용의 형태로 존재한 석전무(石戰舞)도 있었다. 셋째, 석전은 스포츠속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는 타당성이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이 우리선조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석전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왔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민족에게 석전이 단순한 민속놀이의 가치를 넘어 오랜 역사성과 근대스포츠속성을 충분히 내포한 의미 있는 민속놀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t tried to confirm that rock fighting was not only a national game but also was a fully recognized sport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 of its historical viewpoi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rock fighting naturally originated to protect a village or a nation and to pray for a fruitful year. Koreans have put great value on agriculture. Rock figh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shrine of a tutelary deity. It indicates that rock fighting was a martial art sport that has improved together with traditional belief. Second, it was performed on the first month of a year before Koryeo period. It was performed on Dano in Koryeo period and on the 15th of January by the lunar calendar in Chosun period. Like this, our ancestors practiced rock fighting, which naturally developed in history, in their lives. There was a dance called 'rock fighting dance' in western side of Korea. Third, it fully included the characteristic of a sport. So it can be called a sport. This research found that rock fighting was a national game that fully included long history and modern sport characteristics.

Key words: rock fighting, sport, historical viewpoint, rock fighting dance, tutelary deity, long history

서론

석전은 돌싸움 또는 편싸움 놀이로서, 원래 한자로는 변전(邊戰)이라 쓰던 것을 후에 편전(便戰)으로 변경하였으며¹⁾ 석전희(石戰戲), 돌팔매놀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었던 우리민족 고유의 놀이었다. 석전은 개천이나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돌을 던지는 놀이었다(임학래, 2005: 189). 원래 석전은 고유한 한국어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에는 싸움이란 말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대략 ‘戰’으로 많이 사용한다. ‘石’은 물론 우리말로 돌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石戰’을 정의한다면 바로 ‘돌싸움’인 것이다(김재휘, 1983: 10).

우리말로 돌싸움인 석전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태평할 때는 역동적인 신체활동의 놀이었다. 우리민족에게 석전은 매우 특별했으며 그동안 민속학에서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어 연구(김열규, 1978; 한양명: 1993; 심우성: 1996; 박종규, 1998 등)되었다. 하지만 석전의 실체와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민속학에서만 연구되기보다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석전을 신체활동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반드시 체육학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체육학적 입장에서 논의된 석전의 연구로는 김재휘(1983)와 장성수(2000)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석전의 기원설과 석전희(石戰戲)의 이유가 신체단련, 상무적 활동 등에서 기인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석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었다. 우선 석전의 다양한 기원설과 변천과정을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석전의 구체적인 놀이방법과 석전이 다른 형태로 변화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史的 내용을 토대로 석전을 Allen Guttmann (1978)의 근대스포츠 속성인 세속화,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주의, 정량화, 기록 등 7가지의 속성을 석전과 비교함으로써 석전의 근대스포츠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석전의 체육사적 고찰을 통해 석전이 근대스포츠속성과 어떤 유사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석전의 스포츠속성이나 가치 등을 밝혀내어, 석전이 왜 體育學에서 연구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의 근

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전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신문자료, 체육사 서적 그리고 석전의 체육학 자료가 아직 부족한 이유로 민속사 문헌 등을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석전에 대한 연구를 더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되, 보다 신체활동에 중심을 둔 체육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석전의 기원과 변천

석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만큼 그 기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석전은 화약과 화포 등이 발명되기 이전과 그 이후까지도 국토방위의 중요수단²⁾이었다. 즉 인류는 생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에게 돌을 던졌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석전의 기원과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석전의 변천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1. 석전의 기원

고대 전쟁의 놀이적 요소에 대하여 20세기 초 문화사학자인 요한호이징가는 “고대인의 마음에는 싸움과 놀이의 두 개념이 혼합되어 있으며 규칙이 제한되는 모든 싸움은 제한성 때문에 놀이라는 형식을 갖는다(1981: 140~141)”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싸움이야말로 가장 집중적이고 정력적이며 동시에 원색적인 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문화적 속성이 바로 놀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이징가의 설명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싸움놀이, 그것이 바로 우리민족의 석전이다. 白山安廓은 그의 저서인 《朝鮮武士英雄傳》에서 우리나라의 석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石戰이 西洋 武士의 戲鬪祭와 같이 生命 關係를 나타내어 半生半死의 混戰을 이루니, 이런 風習은 실로 東양에서는 類例없는 武風이다(安廓, 1974: 90~91).”

석전은 生과 死의 혼전을 이룰 정도로 매우 격렬한 신체활동이 중심이었고 일찍이 다른 동양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오랜 역사성을 갖는 우리민족의 놀이었다. 이와 같이 유서 깊은 우리민족의 석전은 다양한 기원 설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自然發生說이다. 돌 던지기는 인류와 함께 시작되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화약이나 무기 등이 개발되기 이전, 인간은 살기위해 맹수나 적 등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망치거나 나무에 올라가 피하거나 숨거나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돌 던지기는 도망치면서도 멀리 있는 적을 맞출 수 있어 생존을 위한 본능적 활동이었다. 석전은 또한 돌 던지기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훈련의 개념이 성립되는 신체활동이었다. 즉 석전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해왔던 신체활동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김재휘, 1983: 10).

두 번째로 模擬戰爭說이다. 이것은 원시인들 간의 모의 전쟁놀이를 통해 석전이 발생했다는 설이다. 즉 “동이나 은 등의 금속물질을 가공할 줄을 몰랐던 오랜 역사적 시대에는 돌이나 棒 등이 중요한 생활도구 혹은 무기였다.” 이는 실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돌과 봉 등의 무기를 지니고 전쟁과 전쟁을 하기 위한 연습 등을 통해 석전이 생성되었다(심우성, 1975: 173).

세 번째로 農耕儀禮起源說이다. 이 기원설은 석전을 農耕儀禮의 일종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상무적 놀이로서 보는 기원설과 달리 농업의 풍요를 점치는 행사였음을 의미한다. 즉 석전은 고대에 상무적 훈련보다도 농경의 풍요를 위해 최초 시행되었다(장성수, 2000: 34)는 것이다. 고대와 조선시대의 석전이 거의 정월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그 밖의 비슷한 종류의 집단 민속놀이들도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적 祭儀로 생성되었다(김열규, 1978: 176).

이와 같이 석전기원설은 기존 세가지설이 있다. 여기에 우리민족의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낭³⁾과 석전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서낭기원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국가의 의식과 전쟁은 반드시 상호 반대되면서도 서로 공존하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다. 즉 서낭기원설은 전쟁과 의식의 동반관계인 선사시대의 원시전쟁인 석전과 원시 신앙공간인 서낭사이에서 그들의

상호관계로부터 석전이 발생되었다는 설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는 돌을 쌓아 놓은 累石壇이 있고 또한 이러한 累石이 서낭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룬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47)”는 기록이 있었다. 바로 이 累石이 원시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낭은 본시 부락 방어의 의미가 있다. 서낭이 祭神이나 祭天, 諸山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한적한 산꼭대기에 위치할 일이지 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동네어구에 위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그것이 제단의 의미였다면 돌의 크기가 더 크고 웅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던지기 알맞은 크기였다(동아일보, 2001년 5월 12일, 13면). 이러한 내용은 서낭이 석전을 위한 일종의 군사기지, 혹은 무기고와 같은 군사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신복룡, 1982: 231).

신복룡(1982)은 “서낭의 군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충남 瑞山郡 운산면 거우리 서낭, 慶南 거제시 장승포 서낭, 서울시 강동구 마천동 서낭,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고이리 서낭, 서울시 성북구 광장동 서낭 등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며 이러한 서낭기원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규태(1993)도 “돌무더기가 부족과 부족, 부락과 부락의 경계로 마을을 병역으로부터 수호하는 신앙기능과 외적을 방어하는 전투기능이 있어 동구 밖이나 고갯마루나 능선 등지에 石炭을 쌓아놓고 투석으로 대처하려 했다(조선일보, 1993년 5월 18일, 40면)”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서낭이 유사시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촌락 전선의 石彈 炭炭庫였다는 가능성은 충분하다(조선일보, 1988년 7월 13일, 15면). 즉 서낭은 부락방어의 병참선과 제사의식을 동시에 해결하는 곳이었다. 특히 전쟁과 의식화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전쟁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풍습⁴⁾이 있다.

당시 고대 국가의 중대사는 제사와 전쟁만큼 중요한 일도 없었다. 즉 마을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바로 석전과 서낭당은 不可分の 관계였을 것이다. 석전은 이와 같이 서낭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민족에게는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또한 전쟁 등의 전투에서는 마을 방어, 국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다.

이러한 석전의 기록은 고대를 거쳐 1970년대 까지 이어져 왔다. 아직도 우리민족은 냇물이나 강가를 지날

때면 반드시 돌을 물에 띄워 멋지게 돌팔매질을 최소 두 번, 세 번은 해본 후 강을 건너는 유희민족이다. 즉 우리민족은 다양한 민속놀이 가운데서도 석전을 '戲'했다. 그리고 석전의 기원은 자연발생적으로, 모의전쟁을 위해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석전은 민속신앙인 서낭과 관련도 있었다. 즉 석전은 국가가 장려하여 마을을 보호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오랜 세월 국가를 수호하며 서낭당의 무속과 함께 계승되어온 민족의 오랜 무예라고 할 수 있었다.

2 석전의 변천

석전은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매우 남성적이고 호전적인 놀이였다. 원시시대부터 석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민족의 생활도구이자 무기였다. 즉 동물을 사냥하거나 동물에게서 쫓길 때, 그리고 다른 부족과의 전투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석전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다양한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 있었다. 본 내용에서는 석전의 시대별 변천사를 기록하여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시시대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로 구분하고 있다.⁵⁾ 이러한 시대적 전개 속에 청동기 시대를 기반으로 4C에서 3C로 바뀔 무렵 고조선이 출현하게 된다.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를 전후하여 金石併用기에 속했던 여러 부족 국가들이 철기문화를 수입하여 완성시킴(이학래의 3명, 1994: 33)으로써 삼국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석전은 국토방위와 생존을 위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최초의 석전 기록은 《隨書》의 東夷傳 高句麗편보다 앞서 1세기 초의 상황을 전하는 《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제시되어 있었다.

11년에 倭人이 병선 100여 艘를 보내어 해변의 民戶를 노략하므로, 왕은 六部の 精兵을 일으켜서 막게 하였다. 樂浪은 우리의 内部가 빈 줄로 알고 와서, 매우 급히 金城을 공격해와, 밤에 流星이 적진에 떨어졌다. 적의 무리가 두려워하여 關川 위에 물러가 屯치고 돌무더기 20기를 쌓아 놓고 가버렸다. 六部の 군사 1,000명이 이를 쫓아 吐舍山 동쪽으로부터 앞천에 이르러 적이 쌓아 놓은 돌무더기를 보고 적의 무리가 많은 줄로 알고 그만 그쳤다.⁶⁾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왜군들이 우리나라의 민가를 자주 습격하였으며 이를 응징하기 위해 중앙의 군사들이 출동하여 이를 막았으나 이 시기를 노린 낙랑군이 금성을 공격한다. 하지만 낙랑군은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후퇴하였고 후퇴하던 낙랑의 군사들은 돌을 모아 병참기지인 석퇴(石堆)를 20개 만들었다. 이를 뒤쫓던 중앙의 군사들은 많은 석퇴의 모습을 보고 적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石을 이용한 군사전략이 상당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언덕에 높이 쌓은 석퇴는 앞서 제시한 서낭당의 돌무더미 전투시 병참기지이었음을 제시하는 또 다른 예이며, 석전과 서낭의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석전이 고구려시기에 이루어졌다는 《隨書》의 〈東夷傳〉 기록이다.

매년 초 溟水에 모여서 놀 때 왕은 가마를 타고 儀仗을 갖추어 세우고 놀이를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은 옷을 입은 채로 강물 속에 들어간다. 신하들은 좌우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물을 끼얹고 돌을 던져 가며 소리 지르기도 한다. 달리고 쫓고 하는 놀이를 두세 번하고 그친다.⁷⁾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매년 초에 강물 속에서 왕이 직접 물을 끼얹고 돌을 던져가며 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석전이 고구려 국왕이 주도한 국가연중 행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유가 있는 귀족들의 놀이였으며, 매년 초에 강물 속에서 물을 끼얹고 차갑게 물이 스며든 돌을 던지는 것은 강인한 남성상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민족은 매년 초에 신성한 물로 心身을 정화하였으며 石으로 신체를 단련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석전은 이어져 고려시대에는 '石投班'이라는 돌팔매 부대가 있었다. 공민왕 연간에는 격구와 석전을 금지했다는 기록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석전이 행해졌으나 신체활동이 매우 과격하여 일부 금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高麗史》〈辛禡傳〉에 석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5월에 신우가 석전을 보고자 하므로 지신사 李存性이 "이것은 임금의 구경할 것이 아니다"라고 간하였다. 신우가 불쾌히 여기고 小賢를 시켜 구타하므로

이존성이 피하여 달아나니 신우가 彈丸을 가져다 그를 쏘았다. 우리나라 풍속에 5월 5일 端午節에는 무뢰배가 때를 지어 큰 거리에 모아 斗隊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서로 조약돌과 깨어진 기왓장을 던지며 공격하면서 혹 몽둥이까지도 사용하여 勝負를 가리는데 이것을 석전이라 하였다.⁹⁾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석전이 고려시대에는 단오에 행하는 명절의 풍속이었다. 그리고 석전은 임금도 좋아하는 관람스포츠로서 구경을 막는 지신사가 혼 줄이 낚음도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석전을 행하는 둘에는 던지기 편한 조약돌뿐만 아니라 기왓장이나 막대기, 곤봉 등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고려의 병제는 기병인 神騎軍, 궁수들인 梗弓軍 등과 함께 投石軍이 정규군으로 편성(조선일보, 2008년 2월 22일, 34면)되어 있었다. 이는 석전이 국토 방위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제시하는 기록이다.

그리고 고려 우왕 때는 왕이 직접 석전을 구경하였다고 한다. 왕은 매년 석전을 구경한 듯한데 10년 5월의 기록을 보면, “치암에서 석전을 구경하고 들싸움에 능한 사람 몇 명을 불러 술과 몽둥이를 상으로 주어 기예를 모두 발휘하게 하였다.”¹⁰⁾ 또한 “왕이 석전놀이를 蔞岩에서 보고 그 이튿날에도 석전 구경을 하였다.”¹¹⁾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 속에는 고려말기의 우왕이 석전을 매우 좋아하였으며 고려의 당시 실정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려 했던 《高麗史》 편찬가의 의도가 엿보인다(허인욱, 2005: 180).

조선시대의 석전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행해졌다. “고려 때 설치된 척석군을 근년에 와서 폐지했다가 다시 예전의 군졸을 모으고 인원을 보충하였다”¹²⁾는 조선시대의 기록은 당시의 석전 부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조 이성계는 청심정에 올라 척석회를 구경했고¹³⁾ 성안에 척석회 하는 사람을 모아두고 ‘척석군’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¹⁴⁾ 그들을 사열하는 등 석전에 큰 관심을 보였다.¹⁵⁾ 당시 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을 모아 편성한 이 부대는 태조 6년 7월과 8월, 왜구를 막는데 실제로 동원하였다.¹⁶⁾ 당시 석전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궁성의 南門에 거동해 석전을 구경했다. 절제

사 조은은 擲石軍을 거느렸고 판중추원사 이근은 여러 위의 대부를 거느린 채 좌우편으로 나뉘어 해가 질 때까지 서로 시합했는데, 죽고 상한사람이 자못 많았다.¹⁷⁾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석전을 하였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발생되었을 정도로 과격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가 질 때까지 시합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정신적 무장과 신체적 단련이 중요하였음을 제시한다. 이는 조선 건국초기 강력한 군부의 힘과 석전을 통한 남성다움을 과시한 기록이었다. 특히 임금이 석전을 통해 자신의 군부통솔력을 과시함이기도 했다.

석전은 매우 과격하고 호전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高麗史》에서는 석전을 ‘石戰數’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으며 《朝鮮王朝實錄》에서는 ‘擲石數’ 또는 ‘擲石之數’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數’란 고대전쟁의 유희성을 잘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이기동, 1984: 19~20). 당시 석전은 그저 口傳에 의해 전승되는 민속놀이뿐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체계적 신체단련과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특히 조선시대 태종은 왕좌에서 물러난 후 전승 놀이로 석전을 친히 관람한 후 “석전이라 함은 놀이가 아니라 곧 무예”¹⁸⁾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고려 공민왕 집권 때와 같이 석전이 과격하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기도 한다. 한때 석전이 금지되기도 하고 다시 태종의 시대에는 재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병졸들 가운데 석전을 잘하는 이를 뽑아 ‘척석패’도 조직하였다. 즉 석전이 과격함과 호전성으로 인하여 석전이 금지되기도 하지만 왕들이 석전을 매우 좋아하여 군인들을 선발하여 석전단체가 재조직되었다. 특히 석전은 특정 명절에 행하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조 순조 때 작성된 鄭東惠와 鄭東愈가 쓴 《書永編》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풍속에 매년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2~3일 사이에는 아동들이 때를 지어 좌우로 隊를 갈라 기와조각 돌맹이 등을 서로 던지면서 싸운다. 가끔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도무지 놀라거나 두려워할 줄 모른다. 지금 아이들의 놀이가 된 이 일은 오히려 옛 풍속의 잔재일 뿐이다. 옛날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온 고을 안의 장정들이 다 나와서 싸웠다. 당시 싸움의 형세(形勢)는 더욱 맹렬하였

고 사람은 상해를 입기가 더욱 쉬웠다. 이것을 석전이 라고 한다. 옛날에는 端午日에 하였다.¹⁹⁾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전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놀이였으며 남성다운 과격한 놀이였다. 현재 정월 보름에 석전을 했지만 과거에는 단오날에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석전은 장정들이 주로 하였으나 아동들도 하였고, 또한 과거 단오날에 하였지만 당시는 정월보름에 행해지고 있는 등 참가대상과 시기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석전은 놀이의 측면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외세의 침략의 대비, 적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의 측면이 공존하였다. 또한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석전은 군인이 꼭 하여야 할 훈련과 놀이였다. 석전을 하는 조직적 단체인 '척석군'과 '편쌈군' 등이 의미하듯이 국가의 유사시에는 민중의 힘이 石에 축적되어 적군을 놀라게 하여 물리치는 등 석전이 널리 활성화되었다. 18세기 말 柳得恭의 《京都雜志》石戰條편에서는 석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었다.

三門 밖과 阿峴사람이 萬里峴에서 돌을 던지며 서로 싸웠다. 俗談에 三門 밖 사람들이 이기면 경기도 안에 풍년이 들고, 阿峴사람이 이기면 다른 도에서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 때 龍山· 廡浦의 불량소년들이 結黨하여 아현 쪽을 도왔다. 이 석전이 한창 심할 때는 함성이 천지를 울리는 것 같고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후회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왕왕 못하게도 했다. 長安 아이들이 이를 본받기도 하고 行人이 돌을 무서워하여 피하기도 했다.²⁰⁾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전이 농업의 풍요를 위해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조선시대의 석전은 '척석회', '편쌈군', '척석군' 등 마을이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임금이 유희적 놀이로 즐길 때 행하였으나 《京都雜志》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바로 석전이 농업의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다. 석전을 행하는 과정 중에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이마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는 死傷者가 발생되어도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당시의 석전이 얼마나 격렬한 신체활동이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격렬한 석전은 결국 관청이 금지시켜도 풍습은 중지되지 않고 민간놀이로 전승되었다.

《東國輿地勝覽》의 安東大都護府 風俗 石戰條에는 매년 정월 16일이 되면 府內 주민들이 中溪川을 경계로 삼아 좌우 양편으로 나뉘어 서로 돌을 던져 싸우는 풍속이 있다.²¹⁾ 이는 풍년기원을 바라는 행사로서 석전이 행하여졌으며 나라에서도 금지하였으나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전을 함에 있어 경기도의 사람들이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경기도는 많은 평야 지역을 갖고 있어 풍년 기원을 위해 석전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석전의 변천과정²²⁾은 다음과 같다. 석전이 고대에는 정월에 행하여지고, 고려시대에는 단오, 조선시대에는 정월대보름과 단오에 혼재하여 행하여진다. 즉 고구려와 고려, 조선시대의 석전은 단순한 농경의 풍요를 점치는 주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국토 방위적의미도 공존해왔다. 이는 석전이 국토 방위적 측면과 농업의 풍요를 위해 주술적 측면 등으로 시대적 의미를 단정 짓기보다는 우리민족의 역동성이 석전을 통해 좀 더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석전의 형태와 변화

석전은 스포츠 속성을 많이 포함하는 일종의 축제이기도 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침략군 격퇴훈련이 되기도 했다(조선일보, 2008년 2월 22일, 34면). 본 내용에서는 석전의 놀이형태와 지방에서 석전이 새롭게 변화된 '석전무(石戰舞)'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1. 석전의 형태

심우성은 "수십 년 전 대동강 변에서 석전을 실제 행하던 노인들은 젊은 시절 석전을 하다가 머리에 돌을 맞아 상처가 나는 것을 무슨 혼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다. 또한 자기 아들이 싸움에 패하여 집으로 도망하여 오면 어머니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고 꾸짖어 되돌아가게 하여 끝까지 싸우게 하였다"라고 기록(심우성, 1996: 300)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치 서양의

고대사에서 스파르타인 들의 전투무용담을 듣는 듯했다. 이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석전을 강인한 남성상의 실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성년식처럼 여겼다. 그렇다면 이러한 석전을 우리선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놀이가 진행되었을까? 석전의 진행방식은 《朝鮮常識》의 풍속 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都鄙는 물론하고 邑落이 兩邊으로 나누어 상당한 거리를 두고 陣形으로 대립하여 처음 돌팔매, 곧 擲石으로써 서로 戰意를 도발하다가 敵愾心의 고조를 타고 殺到肉迫하여 6모 곤봉으로써 將師급간의 백병전이 어우러져 一邊이 抵敵치 못하고 패주하던 他邊이 그것을 窮追하여 그 壞陣逃散을 보고 마는 것이니 본대수렵 내지 戰陣의 연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그 기원이 유구할 것을 생각하는 줄며 지난 支那일본기타에 약간 類俗이 없는 바 아니로데 그 보편성·年例性 또는 열광성으로 震域에 比할 자가 없으며 어느 의미에서는 半島를 대표하기에 족한 公의 大競技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석전은 최초 6모 곤봉으로 대장들 간에 타격하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즉 석전이 石싸움으로 최초 시작 된 것이 아닌 곤봉타격으로 최초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석전의 진행방식은 당시 매우 흥미진진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대경기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대행사였다. 이에 더하여 《世宗實錄》에도 석전의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21년 성안에서 방패군과 돌팔매 군이 경기를 하였다. 방패군 300명을 원편으로 하고 돌팔매군 150명을 오른편으로 해서 팔매놀이를 하였는데 방패군이 매번 저서 쫓기므로 장군들이었던 총제 하경복, 광승우, 권희달 등이 기병을 끌고 공격하였으나 역시 패하였다. 돌팔매군은 방패군의 말을 빼앗아 왕에게 받쳤다. 왕이 방패군들에게 계속 지는 이유를 묻자 “저녁 햇빛이 눈이 부시고 먼지가 자욱하여 돌을 보기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²⁹⁾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전을 실시함에 있어 원시적이긴 하나 상당한 군사적 전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석전 경기는 우선 두 팀으로 나눈다. 돌팔매

군과 방패군으로 나뉘어 마치 공격과 수비를 하며 뛰어난 전략과 강한 신체활동을 수반하였다. 돌팔매군은 방패군에 비해 인원수가 반밖에 안되었으나 그들의 돌 던지는 기술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 인원수의 배가 넘는 방패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이는 석전 부대의 파괴력과 조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왕이 패배한 부대에게 패배의 이유를 직접 장수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은 석전이 매우 인기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석전의 방법은 바로 깃발 빼앗기의 방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편과 오른편 두 패로 나누어 힘 피나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열을 보충하였다. 왼쪽은 흰기, 오른쪽은 푸른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다. 두 패의 거리를 200보 가량 두게 하고 명령하기를 “깃발을 넘어서까지 추격해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깃발만 빼으면 이기는 놀이었다. 이긴 편에는 상을 후하게 주었다.³⁰⁾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는 석전은 깃발을 빼앗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석전을 하던 중 ‘깃발을 넘어서는 추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일종의 스포츠맨십이 석전경기에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일화였다. 이와 같이 석전을 생활 속에 실천해오며 성장해온 우리민족은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실용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깃발 빼앗기 석전의 내용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경상도 김해도호부 풍속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지방 풍속에 매년 4월 초파일부터 아이들이 성의 남쪽에 모여들어 돌팔매싸움 연습을 한다. 그러다가 단오절이 되면 장정들까지 모두 모여 좌우로 편을 갈라 깃발을 세우고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며 날뛰면서 마치 비가 오듯 돌을 던지다 승부가 결정되고야 끝이 난다.³¹⁾

깃발 빼앗기 형태의 석전은 단순히 빠른 신체활동보다는 오히려 뛰어난 군사적 전략을 통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원시적 군사전략을 실시하는 석전의 모습은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좌우로 편을 가르고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는 조직적 활동은 당시 석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는 石을 던지는 구체적인 방법²⁶⁾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정약용의 《民堡議》²⁷⁾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적이 50~60보 밖에 있으면 가죽 끈 사이에 작은 돌을 넣고 돌리다가 던졌다. 이때 사용되는 투석기를 우리말로 물풀매, 쫄팽개라고 했다. 물풀매는 주로 닥나무의 길긴 섬유질로 노끈을 꼬아서 만들며, 양쪽으로 약 60~80cm 정도의 길이로 늘어뜨리고 그 가운데는 오목하게 짜서 돌을 었다.

이러한 내용은 노끈을 돌리며 돌을 날리는 우리선조들의 강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강한 노끈과 가죽의 조화로움을 선택한 우리민족 석의 파괴력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민족은 6모 건봉으로 상대방 대장을 타격하며 석전놀이를 최초 시작하였다. 석전의 형태는 각 편을 방패군과 돌팔매 군으로 나누어 경기하는 방식과 청기와 백기 팀으로 나누어 깃발을 뺏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石을 던지는 방법에는 石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가죽 물풀매를 활용하였다. 물풀매는 닥나무의 길긴 재질로 노끈을 꼬아 만들었으며 집게손가락을 활용하여 돌을 날렸다. 이와 같이 석전은 우리 민족의 오랜 민속놀이이자 신체단련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석전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公의 大競技였다.

2 석전의 변화

석전을 ‘戲’했던 우리민족은 주로 개천이나 강을 경계로 삼아서 두 편의 마을 사람들이 돌을 마구 던지면서 싸우다가 백병전을 벌이는 편싸움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돌싸움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마을끼리 뭉둥이질까지 하며 싸우기도 하였다(허인욱, 2005: 179). 이와 비슷한 돌놀이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록으로 발견²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전이 가장 성행한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지방과 개성, 경상도, 안동, 김해지방 등이다. 평양에서는 9월에서 10월까지 늦가을에 돌팔매 놀이가 시작되어 이듬해 정초까지 계속되었다. 석전은 모든 평양시민들이 즐기는 관람스포츠경기였으며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하였다

(김내창, 1992: 303; 유광수의 4, 2006: 212). 북한서적 가운데 《조선풍속사》와 《조선민속사전》에는 석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석전, 돌팔매 싸움, 擲石戲, 석전놀이 등에서 유래되었으며 고구려 때는 정초, 고려 때에는 수리 날에 벌어졌다. 부락과 부락사이에 강을 놓고 남성들이 삼으로 엮은 띠²⁹⁾에 돌을 놓고 휘두르다가 상대방으로 날려 보내는 놀이이다. 이때 이기는 편은 농사가 잘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石을 날리는데 있어 왕패 혹은 망패라는 띠를 활용하여 파괴력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정약용의 서적에서는 이러한 띠를 물풀매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석전에 사용하는 노끈을 돌띠, 왕패, 망패, 물풀매라는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석전이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석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안용철(2004)의 《조선민속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石戰舞는 서도지방³⁰⁾의 민속무용이다. 평안도 지방에 널리 퍼졌던 춤으로 돌팔매 싸움하는 내용이다. 石戰舞는 일종의 집단적인 경기놀이인 석전에서 남자가 한데 어울려 바가지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이다. 이 춤의 특징적 춤동작은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돌띠를 휘둘러 돌을 던지는 동작을 하고 여성들은 손목을 굽히며 어깨를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 등이다. 매우 박력 있고 씩씩하며 흥겨운 춤으로 유명하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전이 실제 형상화되며 돌띠까지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용으로 승화되어 제시된다. 그리고 석전을 여성들이 손목을 굽히며 어깨를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은 현대스포츠에서도 활용되는 손목스냅을 활용한 동작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러한 석전무가 남자가 함께 춤을 추는 혼성무용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서양고대사에서 등장하는 스파르타의 군사무용인 피릭(phrithic)³¹⁾과도 매우 유사하다. 석전무에서 남자가 같이 춤을 추었다는 것은 당시 석전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석전을 하여왔다. 또한 석전을 무용으로까지 변화시켜 승화시킨 민족이었다. 이는 당시의 석전이 우리민족에게 단순한 놀이

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대중스포츠로서의 역할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석전이 스포츠로서 연구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석전의 스포츠 속성

본 장에서는 Guttman(1978)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의 7가지 속성에 우리나라 석전의 특성을 제시하여 근대스포츠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Guttman의 근대스포츠 속성은 역사성과 사회성, 인류학적 측면에서 해석되어 현재 근대스포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Guttman의 근대스포츠속성은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 맞게 가장 타당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Guttman이 제시하는 근대스포츠 속성으로는 세속화,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계량화,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석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속화

Guttman(1978: 26)은 원시스포츠를 대개 신에게 무언인가를 기원하는 성스러운 제례의식, 종교의식 속에서 배양되었다는 근대스포츠의 세속화를 제시한다. 즉 원시시대의 삶은 聖과 俗의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시스포츠역시 성스럽고 정신적이며 종교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근대적 스포츠는 즐거움, 건강, 경제적 이득, 명예 등 세속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주요 속성이다. 이러한 Guttman의 세속성은 원시 종교적 의미의 세속화와 근대스포츠요소 자체의 세속화로 나뉜다. 즉 근대스포츠는 종교적 신념 보다는 여흥의 수단으로, 신에게 봉헌하기보다는 개인적 동기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내용에 석전은 매우 타당하다.

석전은 자연발생적이고 모의전쟁을 통해,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통해 종교적의미가 세속화 되었으며 또한 나라를 지키고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신체적 단련 등의 개인과 국가의 동기에 의해서도 행하여졌다.

세비지랜드어(1999: 235)는 우리민족의 석전 참가에 관하여 “어른들은 아이들을 강하고 대담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기에 참여하도록 종용한다. 나는 엄마들이 기껏해야 8세나 9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

이들을 출발선에 데려나와 같은 수의 동년배들과 싸우게 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기록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활동을 강조하며 교육한 석전은 이미 우리민족의 세속화를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석전은 최초의 종교적 의미와 개인적, 국가적 동기에 의해 실행되었다.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세속화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2. 평등성

Guttman(1978: 26)은 스포츠가 과거와 달리 더욱 평등해졌음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평등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된다. 그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경쟁과정에서의 평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Guttman은 스포츠가 누구나 참가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더욱 평등하게 경쟁되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과거 스포츠의 참여는 귀족들과 남성들에게 한정되어 허용되었다. 석전은 이러한 Guttman의 평등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석전은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특히 石과 곤봉 등으로 무장한 후 참가자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신체를 활용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등성이 기술된 전주문화원(1998)의 《우리전주 문화유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쌍방패거리들은 각기 1백여 명씩 10대가 앞서고, 20대가 그다음, 30대가 맨 나중에 도사리고 앉아 승부를 겨룬다. 10대들이 물러서면 20대가, 20대가 물러서면 30대가 한바탕 投石戰을 계속한다(전주문화원, 1998: 136~137).

위의 기록은 석전의 평등한 참여, 경쟁의 평등성을 제시하고 있다. 석전은 일정하게 편을 나누어 10대, 20대, 30대 할 것 없이 건장한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었다. 이는 석전의 근대스포츠 속성인 평등성을 내포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석전의 새롭게 변화된 형태인 석전무는 남녀 모두의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스포츠의 평등함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평등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3. 전문화

Guttman(1978: 38)은 다양한 스포츠 상황 하에서 선수의 탁월한 전문성과 전문화를 강조하였다. 즉 근대 이전의 스포츠현장에서는 선수의 신체활동이 매우 중시되었으나 뚜렷한 자신들의 역할이 세부적으로 전문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근대스포츠현장에서는 선수역할의 전문화가 매우 두드러진다. 운동소비자인 관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운동기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수 역할의 세분화, 전문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현대의 프로화가 진행되었다.

축구경기를 예로 들면 포지션이 전문화되어 공격수와 수비수, 리베로 등과 같이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고급 기술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근대스포츠의 전문화 속성을 석전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석전의 전문화는 연습을 통해 돌 던지는 기술을 증진시켜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기록이었다. 이미 앞서 살펴본 《高麗史》의 내용 가운데 “고려 우왕 은 매년 석전을 구경하고 돌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불러 술과 몽둥이를 상으로 주어 기예를 발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 이미 석전을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뛰어난 기량에 대한 국왕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風泉遺響》에서는 “태평할 때 미리미리 집집마다 소년들을 빈터에 모이게 하여 오랫동안 교습시킨다면 돌 던지기를 잘 할 것이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석전이 즉흥적으로 즐기는 단순한 놀이차원을 넘어 체계적 훈련이 요구되는 전문화된 놀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언더우드(1999: 56)는 “석전을 하며 투석기로 무장한 저격병들은 높은 장소를 점유하며,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적이 쏘아대는 정면에서 방어물을 기어올라 느닷없이 그들을 잡거나 격퇴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석전을 하는 참가자들이 돌로 저격하는 것과 급습하는 것 등의 역할이 이미 세분화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전문화를 이미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4. 합리화

Guttman(1978: 40)은 근대스포츠의 속성으로 근대스포츠가 점차 합리화되어 가고 있음을 제시한다. 인

류 최초의 원시스포츠는 금기와 전통에 의해 제한받고 규제되었다. 하지만 근대스포츠는 명시된 규칙에 의해서 규제되었다. 즉 그는 스포츠를 하나의 규칙체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칙이 고대의 스포츠를 규정하였고 근대에는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규칙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되고 좀 더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즉 규칙은 “스포츠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정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근대스포츠는 원시시대에 활성화 되었던 사냥을 활싸움이나 총싸움, 즉 양궁과 사격 등으로 합리화시키며 규칙 등을 변화시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켰다.

우리민족의 석전은 시대에 맞게 매우 합리적이었다. 석전에 참여한 이들은 서로 주장을 뽐고 편을 갈라 결투를 한다(L.H.Underwood, 1999: 54). 결투 끝에 한쪽편의 승리가 결정된 듯이 보이지만 곧 처음에 추격하던 패의 정렬은 도망하던 쪽으로 넘어가 반대로 밀리기도 한다(H.B.Hulbert, 1999 : 329~330). 이렇듯 역동적인 석전은 놀이 결과의 미확정성이 있었다. 또한 성의 폐문을 알리는 대종이 울리면 모두 석전을 멈추고 놀이를 종료하였다(A.H.SavageLandor, 1999 : 237). 마치 심판의 호각소리에 경기종료를 이해하고 해산하는 근대스포츠의 모습과 비슷하다. 또한 석전은 경기 방식에서도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깃발 빼앗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훈련으로, 민속놀이로,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활동으로, 남녀의 무용 등으로 시대마다, 지방마다, 특성에 맞게 합리화되며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합리화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5. 관료화

Guttman(1978: 47~49)은 근대스포츠의 속성으로 근대스포츠의 관료화를 주장하였다. 관료화는 보편주의와 원칙과 통제의 표준화, 효율성을 촉진시킨다. 그가 말하는 관료는 다양한 스포츠 단체를 조직하고 규칙을 제정하며 선수를 모아 대회를 개최하는 관료를 중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스포츠가 근대화 과정을 거쳐 규모가 거대해지자 이를 통제하고 관장할 사람들, 즉 관료들이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석전은 자연발생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국가를 수호하는 군사훈련 등

로 행사의 규모가 점차 방대해진다. 세비지랜드어(1999)에 의하면 구한말에는 석전의 규제를 포졸들이 할 정도로 사회의 공인된 행사였음도 기록하고 있었다.³²⁾

석전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관청의 허가가 내리면 대략 3일 동안 읍내 주인과 시골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W.R. Carles, 1999: 129). 또한 석전은 국왕도 관심을 둘 정도로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보다 빠르게 관료화되었다. 석전이 빠르게 성장하여 궁중에서만 즐기던 것이 점차 밖으로 퍼져 國技처럼 되었다(H.B.Hulb ert, 1999: 328).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관료화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6. 계량화

Guttman(1978: 50~51)은 스포츠의 계량화, 수량화를 매우 중요한 근대스포츠속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과거 우리는 고대올림픽에서 우승한 많은 선수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창과 원반 등을 얼마나 멀리 던졌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를 알지 못한다. 단지 과거의 역사적 고대 문헌을 통해 제시된 사건을 통해 제시된 몇 가지 수치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기록한다.

석전에서는 계량화의 측면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국립민속박물관(2006)의 《한국세시풍속사전》에서 제시하는 석사놀이³³⁾의 경우에 돌 던지는 것이 계량화수량화 되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석사놀이는 “추석에 통나무 원목을 세우고 돌맹이를 던져서 그 기둥을 맞히는 민속놀이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石箭이라고도 하며 경상남도 남해에서는 지금도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즉 원래의 석전은 마을끼리 편을 나누어 서로에게 돌을 던졌는데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하지만 이 석사놀이는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된 석전의 변화된 민속놀이였다. 이는 석사놀이를 통해 석전이 근대스포츠에서 적용되는 수량화, 측정화되어 놀이의 표준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돌을 던져 성취의 증명으로 게임을 이기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계량화를 다소 내포하고 있었다.

7. 기록

Guttman(1978: 51~52)이 제시하는 근대스포츠 속성의 마지막은 바로 스포츠의 기록이다. 고대 원시인

들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엇인가 기록을 남기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는 生자와 死자 간의 경쟁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고 말한다. 근대스포츠는 기록을 세우고 그 기록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 기록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행을 이끄는 동기부여이며, 동시에 쉽게 넘을 수도 없는 심리적인 장벽이다.

석전의 기록은 군사적 훈련을 통해 실제 전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실전기록이었다.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기록의 부분에서 다소 의미 전달 상에 어려움이 있다. 석전의 기록은 무엇일까? 석전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 이러한 기록을 보전하려는 내용일 것이다. 석전에서 왕패를 돌려 상대방을 가격하는 방법, 앞서 제시한 석사놀이는 수량화되어 점수로 환산되어 기록화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석전은 근대 스포츠 속성인 기록적 속성은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석전은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石을 던지는 능력을 향상시켰고 훈련과 경쟁을 통해 얻는 석전의 승패는 충분한 기록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석전에서 이긴 편은 풍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석전은 해당 마을과 지역을 기록하여 그 의미를 더욱 기록하게 될 것이다. 즉 석전은 근대스포츠 속성인 기록을 다소 내포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석전이 근대스포츠의 속성과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Allen Guttman(1978)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속성에 석전을 비교하고 史的 해석을 통해 석전이 근대스포츠로서의 속성을 충분히 내포하는 우리민족의 고유스포츠였음을 체육사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석전의 기원은 자연발생적이며, 마을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농업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의 풍년기원과 민속신앙인 서낭과도 일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석전은 고대에는 정월, 고려시대는 단오, 조선시대는 정월과 단오시기에 실시되었으며 농업의 풍요와 국토방위의 기능, 놀이적 기능이 강하였다. 즉 석전은

민속신앙과 함께 계승되어온 민족의 고대무예였다.

둘째, 석전의 구체적 방법은 6모건봉으로 대장 간 서로타격을 하며 시작되었으며 승리의 방법은 각각 방패군과 돌팔매군으로 나누어 청기, 백기를 빼앗는 깃발 빼앗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서도지방에서는 석전이 매우 활발하여 민속무용인 석전무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석전무는 혼성무용으로서 마치 서양고대사의 군사무용을 연상케 하는 매우 박력 있고 씩씩한 춤이었다.

셋째, 석전은 Guttman(1978)이 제시한 근대스포츠의 속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세속화,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의 5가지 속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단 계량화와 기록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석전의 변화된 형태인 석사놀이와 여러 해석을 통해 승리와 풍년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충분한 스포츠속성을 갖는다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석전은 근대스포츠의 속성을 포함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신체단련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다양하게 계승되며 민족의 울분을 표출하였다.

어느 민족이나 돌팔매놀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돌팔매를 조직화 하였고 이를 놀이로, 무용으로, 전투로까지 변화, 성장시킨 역동적인 민족이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석전을 통해 강인한 신체단련을 하였다. 우리민족의 석전에는 이미 서양인이 제시하는 근대스포츠의 속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民堡議》

《三國史記》

《隨書》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書永編》

《風泉遺響》

국립민속박물관(2006). 한국세시풍속사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2006). 전쟁의 기원에서 상흔까지. 서울: 두산동아.

김내창(1992). 조선풍속사.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김열규(1978).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 일조각.

김재휘(1983). 朝鮮石戰에 關한 體育의 考察. 한국체육학회지. 22(2), 9-17.

김철웅(2001). 高麗時代 『雜記』 研究 : 醮祀, 山川·城隍祭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민승기(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서울: 도서출판 가람.

박종규(1998). 朝鮮時代의 歲時風俗에 關한 考察.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3, 1-9.

송원재(2001). 역사교실: 행주산성에는 행주치마가 없다. 서울: 교육비평사.

신복룡(1982). 서양의 군사적의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학술지, 26, 225-255.

신복룡(2001, 5월 12일). 서낭당에 얽힌 비밀. 동아일보.

심우성(1975). 한국의 민속놀이. 서울: 삼일각.

심우성(1996). 우리나라 민속놀이. 서울: 동문선.

安廓(1974). 朝鮮武士英雄傳. 서울: 정음문고.

안용철(2004). 조선민속사전.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요한호이징가(1981). 김운수 역. 호모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까치.

유광수, 이완형, 홍수일, 조도현, 이대중(2006). 전통문화의 세계. 서울: MJ미디어.

이규태(1981, 5월 30일). 석전·기와밧기 등 방위와 직결. 조선일보.

이규태(1988, 7월 13일). 올림픽 서낭당. 조선일보.

이규태(1993, 5월 18일). 망월동 돌. 조선일보.

이기동(1984). 신라상고의 전쟁과 유희. 소헌남도영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19~20.

伊能嘉矩(1917). 石戰風習た就きて思ひ出づるまにく. 人類學雜誌.

이덕일(2008, 2월 22일). 석전. 조선일보.

이학래, 광형기, 이진수, 임영무(1994). 한국체육사. 서울: 지식산업사.

임재해, 한양명(1996). 한국민속사 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임학래(2005).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장성수(2000). 餘暇文化 活動으로서의 석전과 씨름에

관한 通史의 理解. 한국체육학회지, 39(3), 30-41.

전주문화원(1998). 우리전주문화유산. 전주: 신아출판사.

정동구, 하용용(2008). 체육사. 서울: 한림문화사.

조완묵(2006). 우리민족의 놀이문화. 서울: 정신세계사.

崔南善(1948). 朝鮮常識. 서울: 東明社.

한양명(1993). 한국민속놀이의 본질과 성격-편싸움의 유인변화. 한국민속학회, 22, 28-31.

허인옥(2005). 옛 그림에서 만난 우리 무예풍속사. 서울: 푸른역사.

A.H.Savage-Landor(1999).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Guttman, A(1978).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New York: University of Columbia Press.

H.B.Hulbert(1999). 신복룡 역. 대한제국명말사. 서울: 집문당.

L.H.Underwood(1999). 신복룡 역. 상투의 나라. 서울: 집문당.

W.R. Carles(1999).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 서울: 집문당.

주)

- 1) 《東國歲時記》 正月 上元條
- 2) 조선일보 1981년 5월 30일자에 의하면 고구려가 30만의 당나라군을 무찌른 것도 바로 이 돌팔매질 군에 힘입은 것이며 대동강에 진입한 제너럴 사면호를 무찌른 것도 평양의 돌팔매질꾼이었다. 그중 이만춘이라는 명사수는 갑판에 나와 수심을 재고 있던 한 수부를 명중시켰다고 하던 대단한 팔매솜씨가 아닐 수 없다.
- 3) 서낭은 神樹에 잡석을 쌓아 올리거나 신수에 당집이 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부락 공동의 수호신앙을 위해 마을 입구, 고갯길 옆, 산자락 등지에 위치하게 된다. 서낭당 이라고도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쟁의 기원에서 상흔까지(서울: 두산동아, 2006), p 47 참조.
- 4) 예를 들면 과거 고대 부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 발굽을 이용해 길흥을 잡치는 풍속이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쟁의 기원에서 상흔까지(서울: 두산동아, 2006), p 49 참조.
- 5)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000여년 무렵까지 구석기 시대로, 신석기 시대를 기원전 1000여 년경 청동기 시대가 대두되기 이전까지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400여년 무렵까지로, 이후를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임재해·한양명, 한국민속사입문(서울: 지식산업사, 1996), p. 451 참조.

- 6) 《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 1, 남해 차차웅 11년: 倭人遣兵船百餘艘 掠海邊民戶 發六部勁兵 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城城 甚急 夜有流星 墜於賊營 衆懼而退 屯於關川之上 造石堆二十而去 六部兵一千人追之 自吐含山東 至關川 見石堆 知賊衆 乃止.
- 7) 每年初 聚戲於湏水之上 王乘 列羽儀 以觀之 事畢 王以衣服入水分左右 爲二部 以水石相 濺擲詭呼馳逐 再三而上.
- 8) 《高麗史》 권 44, 世家 44, 恭愍王 23년 5월: 庚午 禁擊毬石戰戲.
- 9) 《高麗史》 권 134, 列傳 47. 辛禡 2: 禡欲觀石戰戲知申事 李存性諫曰 此非上所當觀 禡不悅使小豎毆存性存性趨出禡取彈丸射之國俗於端午無賴之徒群聚通衢分左右隊手瓦礫相擊或雜以短棍以決勝負謂之石戰.
- 10) 《高麗史》 권 135, 列傳 48. 辛禡 3: 禡觀石戰戲於鷺巖 翼日亦如之.
- 11) 《高麗史》 권 136, 列傳 48. 辛禡 13년 5월조: 禡觀石戰戲於鷺岩 翼日亦如之.
- 12) 《世宗實錄》 권 12, 世宗 3年 5月 乙丑.
- 13) 《太祖實錄》 권 3, 太祖 2年 5月 丙申.
- 14) 《太祖實錄》 권 5, 太祖 3年 4月 庚午.
- 15) 《太祖實錄》 권 5, 太祖 2年 5月 壬申.
- 16) 삼포왜란, 임진왜란 등의 국난에 석전으로 조직된 石戰軍은 왜구를 무찌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박종규,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소논문집, 3 (1998), p. 7참조.
- 17) 《太祖實錄》 권 17, 太祖 7年 5月 辛亥.
- 18) 《世宗實錄》 권 12, 世宗 3年 5月 乙丑: 上王謂 今觀石戰非戲事 及是武才也.
- 19) 國俗 每年正月十五日前後 數日兒童群聚分隊左右 瓦石相投爲戰 往往至於腦破肢折而都不知 恤然今之爲兒童之戲者 猶是舊俗之囊耳古則 非但兒童一鄉之壯丁者皆出戰勢愈猛 傷人愈易 是乃所謂石戰 而實以端午日爲之.
- 20) 三門外 阿峴人 飛石相擲於萬里峴上 俗云 三門外勝 則畿內豐 阿峴勝 則諸路豐 龍山麻浦惡少結黨救阿峴 方其酣鬪時 喊聲動地 破額折臂 亦不悔也 當部往往禁斷 城中群兒 亦效而爲之行人 皆畏石回避 按唐書高麗傳 筆者註 每年初 聚戲湏水之上 以水石 相濺擲馳逐 再三而止 此爲東俗石戰之始.
- 21) 每年正月十六日 府內居人 以中溪分爲左右 投石相戰 以決勝負 庚午討倭時 募爲先鋒 賊不敗戰.
- 22) 즉 석전이 고대에는 농경의 풍요를 점치기 위해 주로 정월에 했고, 그 기능이 점차 바뀌어 고려시대에는 단오에 행하는 풍속으로 바뀌고, 조선시대에는 다시 정월대보름에 하는 형태로 시기를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석전이 경쟁 놀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다가 다시 주술적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 박종규,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소논문집, 3 (1998), pp. 1-9 참조.
- 23) 《世宗實錄》 권12 3년 5월 갑자, 을축, 병인.
- 24) 《世宗實錄》 권 12 3년 5월 병인.

- 25) 好石戰 每歲 自四月八日 兒童群聚 習石戰于城南 至端午日丁壯畢會 分左右 豎旗鳴鼓 叫呼踊躍 投石如雨 決勝負乃已 雖至死傷 無悔守令不能禁 庚午征倭時 以善投石者爲先峰 賊兵不能前.
- 26) 돌을 던질 때는 노끈의 한끝을 손목에 매거나 손바닥에 쥐고 나머지 한끝은 집게손가락에 걸쳐 빙빙 돌리다가 집게손가락을 놓으면 돌이 날아간다. 이때 돌을 올리는 물풀매는 꼭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서울 : 도서출판 가람, 2004) p. 325 참조.
- 27) 다산(茶山)의 국방에 관한 저서, 외침과 반란에 백성이 자치적으로 대처할 전술·장비·조직 등에 관해서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이조 후기의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과 관련해서 저작된 것이다.
- 28) 일본의 체육사학자 岸野는 그의 저서인 《體育의 文化史》에서 조선의 석전과 일본의 因地打를 비교하며 生産의 呪術的 意義가 깊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석전은 이웃한 일본과 중국등지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화였다. 伊能嘉矩, **석전風習た就きて思ひ出づるまに**(人類學雜誌, 1917), pp. 32~33 참조.
- 29) 북한 학자인 안용철은 이를 '망패'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용철, **조선민속사전**(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2004), p. 103 참조. '망패'는 무명실로 꼬아서 만든 약 50-6-cm의 노끈으로 그 중간에 돌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새로운 무기가 발전하고 실전에서 의미가 감소되긴 하였으나 '왕패'의 파괴력과 과격함으로 인하여 '왕패'의 사용은 점차 사라졌다. 김내창, **조선풍속사**(평양 : 평양종합인쇄공장, 1992), p. 303 참조.
- 30)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지칭한다. 서도민요가 경기민요와 함께 전국적으로 매우 뛰어나듯이 서도지방의 석전舞에 대한 연구는 차후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 31) 군사무용의 성격을 지닌 피릭은 칼과 방패로 무장한 나체의 청년들이 같은 율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각종의 전투행위를 모방한 무용이다. 정동구·하용용, **체육사**(서울 : 한림출판사, 2008), p. 39 참조.
- 32) 당시 포졸들은 석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중을 보호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세비지랜도어, 신복룡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서울 : 집문당, 1999), p. 238 참조.
- 33) 추석에 해변이나 개천가의 공터에서 마을 대항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전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 놀이는 높이가 3미터, 지름 15센티미터 정도 되는 곧은 소나무나 참나무 원목 그리고 손에 들고 던지기 용이한 돌을 준비한다. 돌은 개인당 5개, 10개, 15개와 같이 5의 배수로 나누어 갖는다. 통나무 원목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껍질은 남기고 중간부분만 껍질을 벗기는데 시험에 들어가면 이 중앙부분만 맞추어야 득점으로 인정한다. 통나무를 땅속에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고, 열다섯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사선을 길게 표시하여 던지게 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06), pp. 253-254 참조.